

▶ 2009년 06월 28일 (일) 00:36

### 일본 江운하의 뱃사공



일본 관광의 특색은 철저한 친절과 전통문화가 공존하고 있다.

도쿠가와 막부시절, 시마네 현 영주의 城은 현재 운치있는 도심속의 한적한 운하 뱃길관광의 명소.

관광선이 출발하는 선착장에서 일본 전통복장을 한 뱃사공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.

국제부 이명근 기자/일본 현지취재



OFF Line 내외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(등록번호 문화가00164) 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(등록번호:서울다07265) On Line일간**대한뉴스**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(등록번호 :서울 아00618호)**on-off line**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.